

총학, 총장 '재단 임명제' 전격수용

지난 7일 학자투 합의내용 발표

총학생회는 '96학반기 학원자 주화투쟁(이하 학자투)'사업으로 민주총장 선출 등 4개 요구안에 대해 지난 7일 학교측과 합의도중 12월을 있을 총장선출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입장이었던 '총장직선제'가 아닌 '재단임명제' 방안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지난 달 23일 총장선출 논의를 위해 열린 '대학발전위원회' 임시의회에서 총학생회는 교수협의회의견과 의견조정이 지연되자 논의참여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총장선출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후 이번 학교측과의 논의 끝에 총장직선제의

경우 학내 파벌형성, 지나친 경쟁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총장선출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총학생회는 민주총장 선출에 대해 학교측과 △재단의 총장 후보 선정 이전에 총학생회 및 학내 구성단체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 △총장후보는 총학생회 및 학내구성단체가 추천하는 정책토론회 참여 △향후 학내구성원 의견 수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총장선출 합의내용에 대해 장남규(총학생회 사무국장)군은 "총장선출 합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안은 다음 총학생

〈단대별 복지 합의 사항〉

단	대	합의사항
문리대	예비역회합실내 취업정보 단말기 설치 등	
법대	법학과 형법교수 충원, 행정학과 시간표 조정	
정경대	학생회실 수리 및 환풍기 설치, 신방과 기자재 확충	
사범대	대미교과 맥킨토시컴퓨터 3대 확충, 이젤 60여개 구입	
가정대	실험실습비 가정대 게시판에 공고	
치대	5층 도서관 2중창 설치	
체대	남녀 강의실 내 샤워실 온수 공급 등	
음대	대음악감상실 시설수리 및 교재, 성악과 전임교수 확충	
인복위	주차장 임대료 전액 발전기금화, 가로등 새벽2시까지 점등시간 연장	

회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힌 이번 총학생회 임의기간 중 총장선출논의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한편 다른 학자투요구안에 대해 수강신청제도에 부응해 해선 △97년 1학기부터 예비수강 실시 및 교과목 강의시간 조정, 인원제한 폐지 △학기말 고사 직전 수강신청 실시 △C 학점 재수강 실시 등에 관한

신장병 학우 위한 '사랑의 손길'

기념품 판매, 하루주점으로 성금 모금

요즘 추워지는 날씨속에서도 신장병으로 투병중인 최경원(문리대 영문과 93)군을 돕기 위해 영문과 학생및 교수가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외무고시 1차에 합격한 최군은 고시준비중 건강이 악화돼 휴학을 신청했는데 이를 알게 된 안영수교수에 의해 투병 사실이 알려졌다.

동료 학생들은 "최씨가 평소 수업에도 충실한 모습을 보여 언제나 밝고 명랑한 분위기여서 투병중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고 한다.

특히 이런 사실을 알게된 장애인 학생 장기영(법학과 1)이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손수 제작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열의를 보였다.

최군은 신장을 새로 이식 받아야 하는데 약 3개월후에 어머니의 신장을 이식받을 계획이다. 영문과 학생회는 수술비 마련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모금운동 기념품판매, 15일은 하루주점을 열었으며 계속해서 모금활동을 벌일 예정이고 뜻있는 학생은 영문과 학생회실(961-0706)로 연락하면 된다.

영문과 학생회장 김준우(92)군은 "예상보다 많은 성금이 모여 냉정한 사회분위기는 달리 학내의 따뜻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단과대 학생회장 당선자 확정

평균 투표율 작년보다 10% 낮아

수원캠퍼스 단과대 학생회장 및 동아리연합회장 선거가 지난 12일 투개표가 완료됨에 따라 당선자가 확정, 공고 되었다.

총학생회장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이번 선거는 작년에 비해 약 10%가 낮은 70%의 평균 투표율을 보였다.

다음은 각 단과의 1투표율

①당선자 ②총투표수/득표수이다.

△외대: ①55.7% ②전주연(불문 4) ③462/394 △사회대: ①62.4% ②남주현(경영학부 2), 유상용(행정 3) ③605/552

△자연대: ①77.8% ②김종환(물리 4), 박재용(화학 2) ②669/398 △공과대: ①63.1% ②김보섭(토목 4), 최호진(전자 2) ③1529/957 △산업대: ①80% ②강준영(임학 2), 박종은(도예 1) ③671/418 △체과대: ①80% ②백승훈(체육 3) ③486/426

한편 동아리연합회장 선거(11일 선거)에서는 62개 동아리 1백86명 선거인단 중 총 78표(143명 투표)를 얻은 윤희정(행정 3, 세상그림)양이 당선됐다.

트럼펫 부는 스쿨버스 운전기사 도익록씨

"못다 이룬 꿈에 대한 연주곡"

인터뷰



수원캠퍼스 자대 안 스쿨버스 정류장에서 해질녘에 온온한 트럼펫소리가 들려온다. 호기심을 가지고 트럼펫 소리를 따라가보면 스쿨버스 안에서 한 중년의 남자가 금빛으로 빛나는 트럼펫을 불고 있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년의 남자는 바로 우리학교 강남행 스쿨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도익록(47세)기사 아저씨다.

"이렇게 혼자 트럼펫을 불고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고 옛날 저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혼자서 트럼펫을 연주하는지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며 잠시 미소를 보였다.

악기를 처음으로 연주하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2학년때였고 트럼펫과 색소폰 등 다뤄오지 않았던 악기를 연주하는 정도로만 만능연주자인 그는 어릴 때 꿈이 이룬다는 오케스트라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었다. 순수한 마음으로 악기를 연주하며 그렇게 꿈

을 키워나갔으나 가난이라는 시대적 상황은 어릴적 오케스트라 단원의 꿈을 빼앗아 갔다.

"집안이 풍족하지 않아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했고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 서라벌대학교 합격했지만 입학금이 없어서 대학진학을 못했죠."

이러한 일들에 대한 좌절로 한 때의 방향을 꺾었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음악에 대한 열정은 그를 가만 놔두지 않았다. 그렇게 순수한 열정 하나만으로 힘들게 음악을 했으나 결국 처음 음악을 듣고 전율을 느낀날부터 6여년이 지나고 그 떨림은 그치지 않았으나 현실은

그에게 너무 냉혹했다. 가난, 그것때문에 그는 음악을 포기해야만 한 것이다.

"이제는 나이도 들고 부양해야 할 처지이고 있고 하니 그저 취미정도로 즐길 뿐이죠."

그에게 다시 음악을 할 의향을 묻자 그 열정을 조그맣게 접어 취미라는 꼬리표를 달아 가슴 속 구석에 놓아두었다 한다.

우리학교에서 스쿨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로서 평화로운 삶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한 길을 걸어야 해요. 그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뿐이라 했다.

그 말은 마치 자신의 삶에서 우리나라의 말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트럼펫을 연주한다는 일만 안되었어요. 아직 소리도 부드럽지 못하고 그렇죠."

그가 다시 악기를 손에 잡은 것은 꼬깃꼬깃 접혀있던 그 열정이 다시금 펴지는 징표인가? 오늘도 해질녘 들려오는 트럼펫 소리를 따라가 턱을 괴고 앉아서 한 소절 듣고 난 후애나 관대한일이 다.

(김용운 기자)

학복위, 안경세척기 설치

귀금속 세척도 가능

수원캠퍼스, 학생복지위원회(학복위)에서는 각 단과대 및 학생회관 3층에 총7대의 안경세척기를 설치했다.

안경세척기는 지난 4일 설치한 것으로 안경 이외에 만지·목걸이등 귀금속 세척도 가능하다.

학생복지위원장 원영국(수학 4)군은 "안경세척기는 94년 시범설치때 좋은 반응을 얻어 세밀한 검토후 설치한 것이다"라며 "학생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탈반' 우수동아리 수상

지난 15일 오후2시 서울캠퍼스 학생처장실에서 거행된 '96학년도 우수동아리 시상식'에서 탈반이 1등을 차지해 상금 50만원을 수여받았다.

지난 8월과 11월 동아리연합회(동연)와 학생처가 공동으로 일상적 동아리 활동(회원관리, 동연 참여도, 동아리방 관리, 지도교수)과 특별활동(행사내용, 행사충실도, 학생참여도, 대외인지도, 실험정신 등)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선발하게 된 이번 시상에서는 그 밖에도 COM·COM과 상록이 2등을 사도화, 카·생, GLEE가 3등을 차지해 각각 30만원, 10만원씩의 상금을 받았다.

학생회관 개·보수공사

공사중 동아리방 사용 불가

서울캠퍼스 학생회관 개·보수공사가 지난 10월31일 시작되어 지난 15일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낙후된 동아리 환경개선을 위해 시행하게 된 이번 공사는 중별 전층, 전기수입공사 및 설비공사를 위주로 실시된다.

원래 공사기간은 내년 1월1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공사기간 중 동아리방 사용을 완전히 금하겠다는 총학생회측과의 합의 아래 12월 말경까지 앞당겨 공사를 끝내기로 하였으며 공사기간 중 각 동아리방의 사용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공사를 담당한 관리과는 "학생회관 2층부터 8층까지 전 층에 해당하는 층별공사이기 때문에 공사 완료시까지 학생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부터 사범대의 어학실습실 개·보수공사를 시작한다.

오는 30일 마무리 짓게되는 이번 공사에서는 실습실 내의 방음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기자재를 신규 설치한다.

그 외에도 오는 19일 있게될 현장설명을 시작으로 크라운관도 단기간내에 보수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수원총학, 전면평가 실시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에서는 지난 11일부터 총학생회의 전면적 평가를 실시하여 공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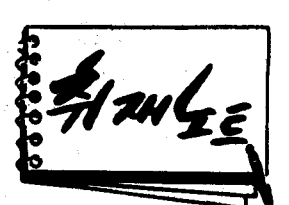
이 평가는 총학생회 사업, 간부, 대중사업, 경회21운동, 학자사업보고를 그 내용으로 한다.

지리학과 학술제

'96지리학과 학술제'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다.

선봉지리·숯피지리 학술제 준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학술제는 20일 오전 11시 복지회관 전실에서 열리는 사진전을 시작으로 21일 오후 2시와 5시에는 답사발표회를,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초청강연회를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갖는다.

환경부 김원민 생태과장의 강의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회에서는 한국의 자연환경 보전현황에 대해 다루게 되며 22일 문리대 로비에서 열리는 사진전을 끝으로 이번 학술제를 마치게 된다.



◇...무료 사위정?!

서천골 중앙도서관 분수광장에 무료사위정이 신설되었다하여 노트리 알아보니, 이는 광장을 통행하는 獅형들에게 수압조절 안되는 분수가 선사하는 물세례식 사위장이라고

여름에는 시원해서 편찮다지만 얼음 어는 한겨울의 때 아닌 사위(?)는 극구 사양하오

◇...선한공직자=독신남

요즘엔 장관임명시 '장관부인 면접'시험(?)만으로 장관을 선출한다기에 노트리 알아보니,

힘없는 장관보다 마나님을 따위(?)가 각종 정책 반영과

추진에 더 중요한 역할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나.

장관후보님들 이젠 독신남으로 사는 것이 후보 첫걸음이 아닌지 모르겠소만.

◇...유세관람학

요즘 전공강의에선 '유세관람학'이라는 신종학문을 잠깐씩 다룬다하여 노트리 알아보니

학생회장선거가 가까워오자 전공시간마다 여러팀의 후보들이 강의전에 들어와 유세를 하느라 귀중한 수업시간이 단축된다고.

짧은 시간 수업이 단축되는 것에 너무 민감한 게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전공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학우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후보님들 알아주셨으면 하오.

21세기 소재산업의 리더, LG금속

正道경영·초우량 LG

순도 99.99%를 사랑하는 사람들

"내 작은 땀방울이 이 사회의 풍요를 떠받친다면 그게 기쁨이겠지요"

"삶의 보람을 아는 우리들 가슴속에는 21세기가 살아 숨쉬습니다"

순도 99.99%를 향해 100%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LG금속의 얼굴입니다.

미래 산업사회의 핵이 될 소재산업 - 생활·산업용 금, 은, 동에서 첨단 소재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LG금속의 사람들은 비록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풍요를 떠받치고 있다는 긍지로 삶을 가꾸고 있습니다. 99.99%를 위해 100%의 열정과 긍지로 살아가는 사람들, LG금속맨의 가슴에는 21세기가 살아 숨쉬니다.

LG금속은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비철재련 연간 22만5천톤의 99.99% 電氣銅을 비롯하여 금, 은 등 10여종의 비철 금속류에 황산, 무수황산, 무수아황산, 도금약품 및 전자공업용 고순도 황산 등을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금속가공 고품질의 동파이프, 스테인리스 파이프 및 무산소동·합·배·鐵과 같은 순동 가공품을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특수소재 최첨단화학물, 고순도금속, 최첨단소재, 후막성도료 등의 첨단소재생산과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LG금속가공사업부
장학공장
이우형

인재개발팀
한등훈

도약 2005

